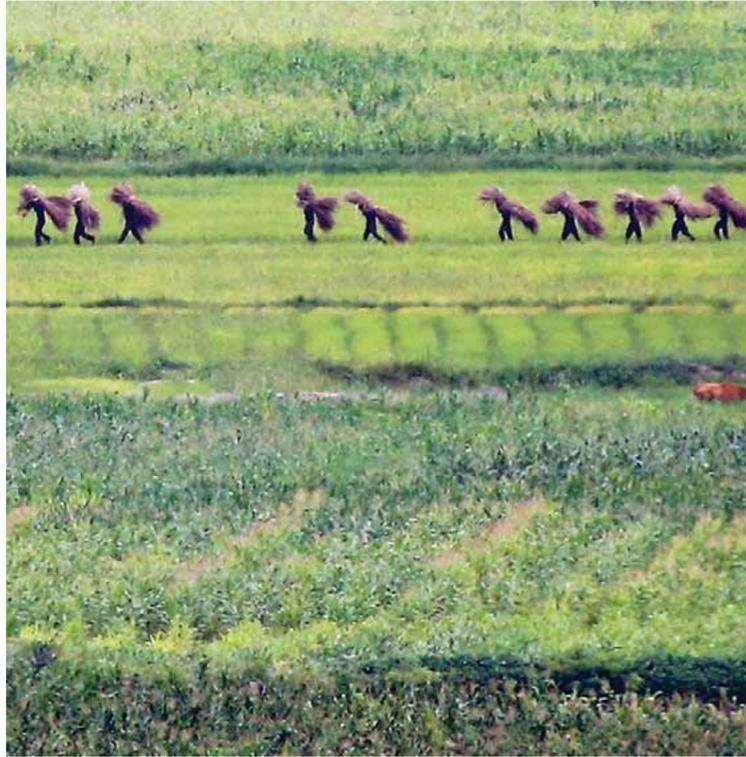


“50년 가로막힌 광주의 안식처... 이제 돌려달라”



준전시 풀린 북한 북한군이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한 지 하루가 지난 26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제적봉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삼달리. 북한군인들이 갈대를 이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표 “추석 이산가족 상봉 1000명 이상 돼야”

남북관계 정상화 ‘4대 제안’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남북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4대 제안’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합의가 타결되자 폭락하던 증권 시장이 안정됐다. 역시 평화가 경제다”라며 “이제는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대규모화 및 정례화 ▲지자체 차원의 교류 재개 지원 ▲남북 민간단체 차원의 중단된 행사 재추진 ▲역대 남북 합의 상조 존중 및 실천 등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번 추석 상봉은 최소 1000명 이상을 목표로 북측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통일부에 주문한다”며 “상봉 정례화, 금강산 면회소 상설화, 생사 확인 등 상봉 확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달

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10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민간 차원 교류가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며 “경평(서울-평양) 축구 부활, 서울시장 평양 공연 추진 등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에 몰고올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민간단체들이 올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했지만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여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며 “광복 70주년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무산된 행사 등 민간 차원 행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번 합의가 매우 뜻 깊지만 6·15, 10·4선언이 도달한 수준에 비하면 까마득하다”며 “앞으로 계속될 대화의 1차 목표는 7·4, 6·15, 10·4선언 등 역대 남북합의를 상조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는 데 뒤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군부대 이전 시민운동 확산

2007년부터 서명·사진전... 활발 새 대공체제 軍주둔 필요성 사라져 12월 31일로 사용기간도 만료

전라도 사람들의 무등산 사랑은 유별하다. 지난 2013년 무등산이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거듭났지만, 광주 시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무등산 사랑은 여전하다.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말없이 보듬어 준 무등산,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때론 직접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로 무등산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이유로 광주 시민들은 지난 2007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무등산 산행 당시 정상부 군부대 이전을 건의하는 것을 기점으로 무등산 군부대 이전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사회·환경단체는

물론 정치권,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무등) 광범위한 군부대 이전 운동이 확산됐다.

최근 1년만 해도 지역 환경단체가 추진하는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무등산 옛 사진전 개최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연례 행사로 굳어진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도 국가안보를 위해 50년간 내어준 무등산을 되찾아오려는 수많은 몸짓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생태·환경 차원에서도 무등산은 우리에게 특별한 곳으로 다가온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수달, 팔색조뿐만 아니라 야생 동식물 3000여 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무등산 주상절리대, 시내에서 10분 거리에 거대한 숲이 펼쳐져 있어 연간 방문객도 수백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무등산은 국내 21개 국립공원(산악유지형 16개)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공원 정상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광주 시민들은 무대 주둔이 시작된 1966년 이후 50년간을 안보를 위해 전왕봉·지왕봉·인왕봉 등 정상군 당국에 가까이 내줬다. 하지만, 국방부가 대공방어를 위해 2020년대 초반기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군부대의 무등산 주둔 필요성은 사라졌다. 국방기술 발달과 새로운 무기 도입체계 도입으로 무등산 정상을 주둔지로 고집하지 않아도 국토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일반 시민 누구나 알

게 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사찰 소유의 무등산 정상부(면적 21만㎡)를 50년째 무상으로 사용 중인 군부대는 그동안 정상을 되찾으려는 시민들의 열망은커녕, 주상절리대 등 환경적으로도 가치가 큰 자연유산을 보유한 무등산 보호에도 무심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약속된 4회 무등산 정례 개방 행사마저도 일반적으로 불허 통보하는가 하면, 그 대안으로 환경 파괴가 불 보듯 뻔한 신규 등산로 개설을 제시하는 등 지역민의 정서와는 배치되는 행태를 보였다. 방공포 설치로 명분으로 무등산 정상(1187m) 봉우리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지난해 봄엔 기름 유출 사고까지 저지르기도 했다.

유류 탱크에 저장 중인 기름(172ℓ 추정)이 계속으로 출출 새는 것을 목격한 탐방객 제보 전까지 군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시민·사회로부터 군부대 이전 요구를 불려왔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무등산 공군부대가 광주시에 허가받은 부지 사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를 앞두고 사용기간 연장에 앞서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시기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무등산 군부대 이전 열망을 국방부 등 정부에 온전히 전달하겠다”면서 “군부대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을 실현할 방안을 지역정치권과 함께 구체적으로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khk@kwangju.co.kr

초특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399,000원에 간다!~

(선착순 30명 한정)

기타큐슈/벵부/유후인/후쿠오카 3일 399,000원

[특전] 카마도지역 온천 개관 12개 증정, 족욕 체험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일본 8만개 신들의 고향 하치만군의 본사가 있는 우사신궁 관광 ▶ 일본 자연유형재해지 유노하나 관광 ▶ 일본 최대의 온천수를 자랑하는 벵부 지역순례 카마도 지역 ▶ 전통 민예촌거리, 긴린코 호수 자유시간 ▶ 아미가세 고급 펜션(2인실) 투숙 및 온천욕

2일차 지옥폭포 관광 ▶ 태재부 천망공 관광 ▶ 베이사이드 하카타 타워 ▶ 오오리공원 일본정원 관광 ▶ 후쿠오카 시내 캐널시티 개인 자유시간 ▶ 자연사 박물관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시라쿠야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자마 3일 459,000원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토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칸타이로 관광 ▶ 이초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자마 오모도리 ▶ 미야자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초쿠시마 본전 ▶ 미야자마 오송박물관, 다카부타이 ▶ 호텔(온천호텔 또는 1급호텔) 투숙

2일차 히노야마 전망대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시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범루 ▶ 카르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에 모여 있는 모지코 레트로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시라쿠야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통포함사항 국세선 항공료, 무안 공항세, 전경보험료, 현지 공항세, 유류비, 렌터카(2인실) 또는 호텔(2인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입국료, 19인 여행보험료. [특전] 선착순 40명 무안공항 활보 수송

■ 공통포함사항 상급차지, 개인 경비, 가이드/기사 경비(30,000원)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 에어텔(기타큐슈 비즈니스호텔 1박+항공) 3일&4일 269,000원~
- 기타큐슈/히라오다이 올레길 3일 529,000원~
- 오이타/오쿠분고 올레길 4일 769,000원~
- 야마구치 조요C.C 골프 3일(36H) & 4일(54H) 4일 779,000원~

슬며시 불안해진 한반도... 남북 대치 풀려 다행

김은영의 그림 생각

(124) 불안

아센시오 홀리아 작 '거인'

살 세 가마, 라면 세 박스. 지난 주말 팔손의 시어머니께서 비축해놓으려 당부하신 목욕이다. “전쟁 겪어봐서 안다. 전쟁 일어나면 식량이 있어야 안 굶어 죽어...”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초긴장이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살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겠어.’ 했던 안이한 마음이 슬며시 불안해졌다. 우선 라면 한 박스를 ‘사재기’해 두었다.

다행히 남북 군사적 대결 상황이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그때까지 대다수 사람들처럼 평온한 일상을 보냈지만 “만일, 살마”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았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분쟁의 고통과 참혹함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스페인 출신의 프랑스인 고야(1746~1828)는 전쟁 그 자체가 폭력적이고 공포임을 일찍이 인류에게 고했던 작가다. 1808년 프랑스의 지배에 맞서 일어난 봉기를 진압하려 스페인을 침략한 나폴레옹의 군인들이 저지른 잔악행위를 묘사한 ‘전쟁의 참화’ 동판화 연작과 ‘5월3일 밤의 처형’ 등을 통해서도 전쟁의 광기와 불행을 직접적으로 담아냈고 고발했고 증언했다.

작품 ‘거인’(1810~1812년 작) 역시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략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림이다. ‘거인’은 고야의 대표작으로 꼽

이 작품에서 폭풍 직전 검은 구름 위로 등장한 거인은 수평선 부근에 다리를 벌리고 서있고 거인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과 역마차, 짐승들이 공포에 싸여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다. 처음 대했던 순간, 불안과 공포가 으스스하게 전달됐던 기억이 난다.

전쟁은 누구에게라도, 어느 때라도 ‘거인’의 화면 가득 떠도는 음울하고 참혹한 고통처럼 처참한 모습일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인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